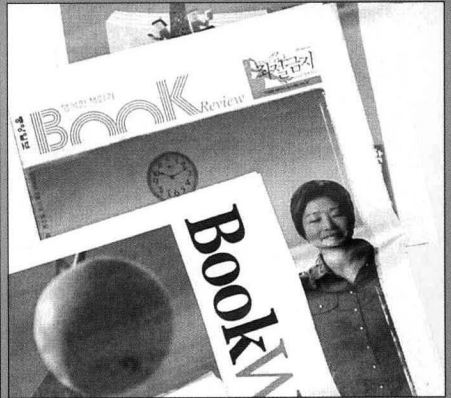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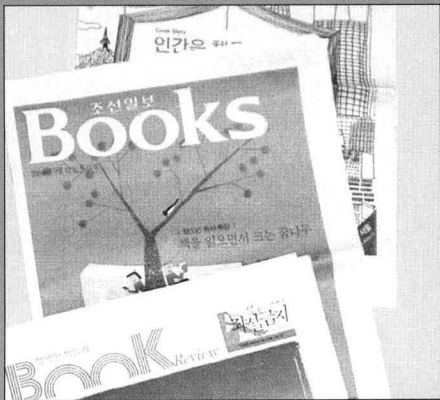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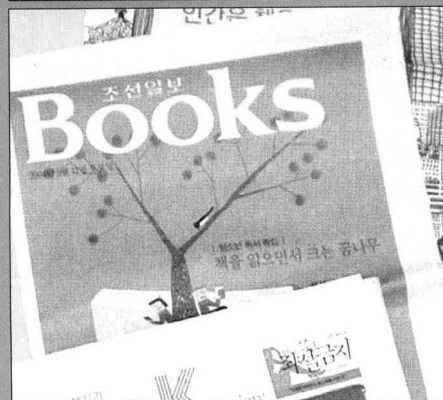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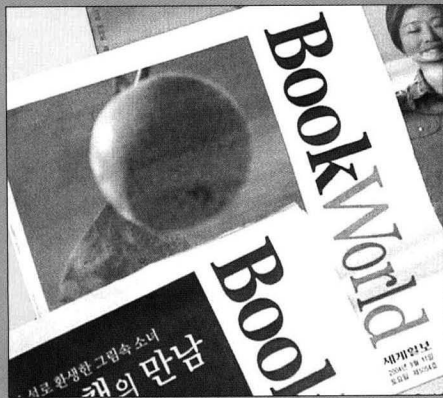
이달의 주목할 만한 이달의 책들



인간과 인간의 악,

근대와 호열자와

문화혁명의 하수인을 돌아보다



1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언론의 책장에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넘쳐났다. 책 《인간》에 대해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필두로 주요 일간지들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간에 대한 착상과 관념에 흥미를 갖는 듯했다.

20일자 <동아일보>는 우주 행성의 유리 감옥에 갇힌 한 남녀가 인류의 미래를 두고 농담처럼 '농담' 하는 모양에 대해 우선 "작가 자신의 인간 이해와 기량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평자는 특히 "애니메이션 코미디처럼 날렵한 얘기들의 열개는 마치 사뭇셀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부터, 미국 펄프 픽션들에 나오는 외계인의 인간 채집 이야기, 필립 딕의 과학소설들에서 보이는 비범한 존재론, 짐 캐리 주연의 영화 '트루먼쇼' 등을 버무려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까다로운 멘트를 가했다. 비교적 언급이 자유로운(?) 해외작이어서인지 한결 엄하고도 진솔한 비평이었던 셈이다.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역시 종합일간지들이 일제히 코멘트를 가한 문제작이다. <세계일보>는 20일자 문화면에서 "악(evil)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알파벳을 거꾸로 읽으면 삶(live)이 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우연인가, 아니면 심오한 의미가 깃들인 신의 암시인가"고 물었다. 미국의 정신분석 전문가 찰스 프레드 앨퍼드가 써낸 이 책은 재소자들을 통해 '인간의 악'의 근원을 캐는 데 몰두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악은 악령이라는, 인간 외부의 객관적인 실체가 시주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며

우리들 자신을 통과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독이 든 선물'이라는 지은이의 결론을 환기시켰다. 또한 "그 선물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인간들이 숙명적으로 타고난 '과멸적인 운명'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은이의 주장에 귀기울일 것을 권했다.

6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문화일보> 등의 문화면과 북리뷰 코너엔 스티븐 켄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에 대한 감상과 비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경향신문> 서평자는 "단선적 역사기술에 비해 다양한 지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을 이 책에서 찾아냈다. 그리곤 "통상 낙하산을 타고 '과거의 땅' 어느 지점에 투입된 뒤 '현재의 땅'으로 직선 코스를 밟아 되돌아오길 거부한 특이한 기술방식"에 주목하며, "독일 문예비평가 발터 벤야민이 꿈꾼 글쓰기 방식, 즉 남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텍스트를 완성해 전혀 새로운 자신의 글을 완성하려는 시도와 흡사하다"고 감정했다.

같은 날짜 <한겨레> 역시 "엄밀한 이론을 세우고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들이밀지도 않고, 반대로 자료들을 보여주지만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술하는 방법과 장르별로 서술하는 방법을 과감히 버리고, 크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에서 전쟁으로 치닫기 직전 유럽의 풍경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방식"을 높이 샀다.

6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위시한 종합일간지들과 도하 경제신문들은 특히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에 반색하는 듯했다. 이들 리뷰의 행간엔 한결같이 'IMF 위기 대처, 과연 유효했다?'란 물음을 깔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은 20세기 들어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델 중의 하나였다"는 저자들의 회고에 특별히 밑줄 그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정실情實 자본주의, 대마불사론大馬不死論, 재벌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부채 비율을 든 데 비해 "저자들은 '발전국가'의 쇠퇴, 정부의 금융 자유화 부실 운영, 글로벌화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소금이나 케첩으로 간장과 고추장 맛을 내듯" 한국의 전통적인 국가-은행-재벌의 추격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영미식 시스템을 억지로 도입함으로써 실패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책의 진단에 동의했다. 서평자는 그러나 "한국이 '제2의 추격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저자들의 예측에 대해 "이들의 예측이 틀리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곁들이기도 했다.

《홍위병》과 《밴디트》, 《티나 모도티》 등도 11월 한 달 동안 꾸준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책들이다. 선판이 지은 《홍위병》에 대해 특히 <문화일보>와 <국민일보>가 장문의 서평으로 관심을 표했

다. 11일자 <문화일보>는 "문화혁명의 주인공(또는 하수인)이었던 홍위병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저술한 책"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부대끼며 성장하고 살아온 주인공의 삶에 대해 신문은 "온갖 굴곡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저자의 강인한 정신력"을 평가했다. 또 "포기할 수 없는 개인적 야망(꿈)을 간직할 수 있게 한 독서의 힘과, 부르주아 집안의 딸인 리링과의 해후로 메마른 삶을 지탱해 나갔던 '아스라한 사랑의 체험담'"에 주목하며, "감상을 최대한 절제하고, 단문 위주로 쉽게 써내려간 문장은 읽는 이를 순식간에 책 속으로 빨아들인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일간지들은 또한 일제히 '티나 모도티'란 한 여인의 일대기를 예사롭잖게 봤다. 그 중 12일자 <국민일보>는 혁명가이자 모델이며, 배우였고 종내는 여성사진작가였던 티나의 평전이기도 한 마거릿 혹스의 《티나 모도티》에 대해 "전통을 벗어난 여성에게 주어질 예정된 비극"의 서사점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책의 전편을 통해 드러난 티나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하는 말미에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며 분방한 연애주의자이자 혁명가였고, 자유인이었던 그녀는 예술이든, 사랑이든 사회가 만든 제약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예사롭지 않았던 한 여인의 생을 일깨웠다.

신동원의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에 서평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신문들도 많았다. <한국일보>는 특히 "역병을 하늘의 재앙이며 운명이라 여겼던 시절이 전근대였다면, '호열자'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 근대는 질병을 과학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낙관의 시대"였다고 책의 내용을 풀어 새롭게 해석했다. 신문은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조선사람 허준' 등으로 의학사 연구에 적지 않은 성과를 쌓아 온 저자는 근대 언저리의 급변하던 의료 생활과 전통 의학의 세계를 함께 복원해 냈다"며 "탄탄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문체가 다양한 시각 자료와 어우러져 의학이라는 무거운 내용을 의외로 가볍게 전달해 준다"고 호평했다.

이 밖에도 <존경받는 부자>, 《우키요에의 미》, 《아름다운 소년 보이》, 《움베르토 에코 평전》, 《민중의 세계사》, 《10년 불황, 그러나 HIT는 있다》,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남자의 이미지》,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등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책들이다. 이들은 적게는 300자 안팎에서 많게는 1,000여 자에 이르기까지 서평자들의 성의 있는 글품의 대상이 됐다. \*\*

출판저널 편집부